

발간등록번호
54-3510020-00002-09
www.namdong.go.kr/council

No.43

2015년 통권 제 43호

Incheon Namdong Gu Council

남동구 의회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위로

글. 임덕명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지금의 내가 보잘 것 없어서가 아니라
늘 그 자리에서도 가을 햇살을 담은
어머니의 품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소꿉친구가 보고픈 것은
그들이 어여뻐서가 아니라
소나기속에서도 해맑게 웃던 그시절이
애뜻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추억한다는 것은
지금의 내가 외롭다기 보다는
어른인척 하기에 고단한 마음밭에
작은 꿈이라도 심기 위함이다

벌써 가을 하늘은
마당 깊숙이 들어와 앉아
빈 가슴을 송두리째
채색을 한다 토닥토닥
내 등을 두드리며



CONTENTS

소통하는 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남동구의회



통권 제 43호

Incheon Namdong Gu Council

남동구 의회보

- 02 | 발간사(의장 한민수)
- 04 | 제7대 전반기 남동구의회 구성현황
- 06 | 의정1년을 되돌아보며
- 24 | 자유기고문
- 30 | 남동구의회 회기 운영 현황
- 55 | 구정질문 및 답변
- 77 | 5분자유발언
- 83 | 결의문
- 84 | 의원 세미나 및 의정활동
- 96 |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 106 | 2015년도 회기 운영계획



의 장 한 민 수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의장 한민수입니다.

지난해 7월 남동구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개원한 남동구의회가 벌써 일주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비전을 세우기에는 길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동구 의원 16명은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과 정치철학은 다르지만, 주민 여러분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대전제에서 만큼은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통권 제43호 남동구 의회보는 남동구 의원의 올 한 해 활동과 구 의정을 통해 느끼고 배운 바를 실은 작지만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지난 일 년 동안 남동구의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한 정책은 바로 소통하는 의정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남동구의회’ 라는 슬로건은 남동구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항상 있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다가 서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7대 남동구 의원 모두는 무엇보다 주민이 먼저 다가설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의원 모두는 열린 의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의정활동의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일 년 동안 약 250여명의 학생과 50여 명의 일반 주민이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을 참관하였고, 의원실과 의회 시설물

을 견학하였습니다. 비록 소소한 활동이지만 이를 계기로 남동구의 회가 주민여러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방문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의정 자료의 공유, 의원별 활동의 홍보와 건의 사항 수렴 등을 통해 열린 의정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의회보는 올 상반기동안 남동구의회가 개최한 1차례의 정례회와 3차례 임시회를 비롯한 의정활동을 실었습니다. 각 회의의 처리안건 및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사항은 주민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활 관련 조례와 예산을 중심으로 보기 쉽게 편집했습니다. 또한 구정질의회와 5분 발언의 전문을 실어 여러분이 놓쳤던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실어 의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동구민 여러분!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나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알아봐주시는 주민분들이 칭찬해주거나, 어른신들이 격려해줄 때도 감사하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답답하고 해결하기 힘든 민원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절감하고,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 것인가를 스스로 되돌아 봅니다. 남동구의회와 의원 모두는 항상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실망시키지 않는 제7대 남동구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8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 **한민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7대 전반기 구성현황

의장 / 부의장



의장 한 민 수
만수1·4·6, 장수서창



부의장 박 인 동
구월2·3, 간석1·2·4

의회운영위원회

● 위 원 수

7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5)

● 소관사항

-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위원회 심사 등



위원장 민 창 기
논현1·2, 논현고잔



부위원장 최 재 현
비례대표



위원 문 중 관
논현1·2, 논현고잔



위원 임 춘 원
구월1·4, 남촌도림



위원 임 동 희
간석3, 만수2·3·5



위원 임 순 애
간석3, 만수2·3·5



위원 조 영 규
간석3, 만수2·3·5



위원장 신동섭
구월2·3, 간석1·2·4



부위원장 임동희
간석3, 만수2·3·5



위원 문종관
논현1·2, 논현고잔

총무위원회

● 위원 수

7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5)

● 소관사항

-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각 동의 사무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위원 박인동
구월2·3, 간석1·2·4



위원 임순애
간석3, 만수2·3·5



위원 이유경
비례대표



위원 최재현
비례대표



위원장 한정희
만수1·4·6, 장수서창



부위원장 임춘원
구월1·4, 남촌도림



위원 민창기
논현1·2, 논현고잔

사회도시위원회

● 위원 수

8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6)

● 소관사항

-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각 동의 사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위원 이오상
논현1·2, 논현고잔



위원 서점원
구월1·4, 남촌도림



위원 이선옥
구월2·3, 간석1·2·4



위원 조영규
간석3, 만수2·3·5



위원 전유형
만수1·4·6, 장수서창



의정활동 1년을 되돌아보며...

(논현1·2, 논현고잔) 남동구의회 의원 문종관

의정활동을 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첫 해를 보낸 지금의 기분은 뿌듯함보다는 스스로의 짐이 무겁기만 합니다. 지역이나 현안문제에는 솔직히 아직도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더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더 열심히 지역 활동 및 의정활동에 매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와 의욕적으로 도전했지만 생각처럼 의정활동이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현장에서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법적 제약으로, 때론 관행이란 이름 앞에 무기력하게 돌아 설 때는 민원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힘이나마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시정되고, 불편함이 처리 될 때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목위민유호(牧爲民有乎)는 말이 있습니다. “통치자는 백성을 위하는 일을 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산의 모든 개혁안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오직 백성의 편익과 생활을 위주로 한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구의원에 임하면서 자리에만 연연하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당선 후 지역 경로당 35군데를 다 찾아다니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뭐가 필요하신지 여쭙보고 필요한 물품을 조사했던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가 되니 진짜 의원이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불편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행복한 남동구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으로 논현동은 가장 중요한 소래포구 개발 국가어항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어항 지정이 시흥, 월곶만 유리한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저 역시 구 의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어민, 상인 나아가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



되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센터 소래아트홀을 더욱 활성화하여 문화의 질적 향상 및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처럼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 3년의 시간은 정말 후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의회로 지역사회 참여

(논현1·2, 논현고잔) 남동구의회 의원 민 창 기

30여년을 인천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했던 봉사활동에 공직자로서의 삶에 보람과 의미를 부여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고 자부했다.

여가 시간마다 틈틈이 해오던 봉사활동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만났던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었으며 또한 그 일에 보다 더 큰 추진력을 갖고 싶어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역할을 꿈꾸며 감히 욕심을 내보았다. 그리고 다행히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지 덕분에 지난해 7월 남동구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고, 공직과 또 다른 의원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소임과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다했는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된다.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의원 세미나와 비교시찰은 우수한 타시도 사례를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 1월 보령시 의회 방문을 통해 의원 재부재 현황설치를 눈여겨 보았으며 이를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도입 검토단계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기도 하였지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우려했던 역기능과는 달리 그동안 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출근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재실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해당 의원의 재실여부를 TV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논현1·2동, 논현고잔동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지역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집행부로 또는 의회로 전달하며 해결점을 찾으려 열심히 뛰어다니기도 하였다. 지난해 긴장감 가득 안고 마무리했던 등원 후 첫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는 지역구에만 연연하지 않고 남동구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펼쳐나갔다. 또한 (사)시민자원봉사 단체를 이끌던 오랜 경험을 살려 자원봉사자들과 연대하여 재능을 기부하는 문화 복지사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국 최초로 소래포구역 앞에서 65세이상 어르신들의 그 동안 숨겨 놓았던 장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한마음 실버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소래포구는 수인전철의 개통으로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재래어시장으로 전철 하부 그늘과 공원에서 거리연주자들의 음악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의 여러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실버노래자랑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더 큰 역할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제1회 남동구 실버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어르신들을 기쁘게 한 일 외에도 인천장애우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일일차집 바자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익금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었던 일들도 기억에 떠오른다. 앞으로도 남은 3년의 의정활동에서도 소외된 어르신을 찾아가 위로해 드리며 주민이 찾으면 언제든지 달려가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으며,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역할로 화합하며 발전하는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나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구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선임위원장으로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본다.



의정활동 1년을 돌아보며

(구월1·4, 남촌도림) 남동구의회 의원 임춘원

남동구 구월1,4 남촌도림수산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원 임춘원입니다.

남들이 저에게 “왜 구의원이 되었나?” 고 가끔 질문을 합니다. 참 고민스런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에 어찌 답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대답하면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의원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직업을 얻은 셈이죠. 그렇지만 저는 의원이라는 제 자신의 직업에 당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뿐만 아니라 제 직업에 사명감 또한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의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내가 하는 일은 우리 남동구민들의 대변인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구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6.4지방선거에 남동구의원으로서 당선되어 활동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잘 하려는 의욕만 앞섰지 실제로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도 많이 부족했고 2년차에 접어든 올해 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실천되었나 하고 이 글을 쓰면서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남동구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스스로의목표가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낀 지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의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올해부터 대학원에 진학하여 지방자치에 관해 체계적으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 올해로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매우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많이 부족했고 의원들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지 우리 의원들이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는 직업은 견제 기관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군림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견제와 협력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뒷받침해 주고 주민들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해 질수 있도록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을 멀리하고 의회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협력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기본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치고 새롭고 창의적인 부분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기초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여야 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구의원이 되겠으며 늘 처음처럼 초심을 유지하면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월2·3, 간석1·2·4) 남동구의회 의원 박인동

나이를 먹은 탓일까. 아니면 타인들의 시간이 나의 머리 위에 쌓인 것일까. 지천명(知天命)의 문턱이 아직 저만치 있는데도 거울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세사(世事)에 찌든 50대 중반처럼 보일 때가 있다. 누구나 인생은 단 한번 살게 마련이다.

사람에게는 일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한다. 나는 20대에 남보다 빨리 출세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혔고, 3,40대에는 안개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左衝右突)하며 방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상의 파고(波高)가 높아질수록 나의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갔다. 통음(痛飲)을 일삼으며, 하늘이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했다.

오랜 방황 끝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삶의 터전을 잡으면서 서서히 나의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이웃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뇌리(腦裏)에 쌓여가면서 나는 공복(公僕)을 생각하게 되었고, 주변의 권유로 결국 풀뿌리 의정(議政)에 몸담을 수 있게 되었다. 초선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일인 양 불철주야로 다녔다. 정말로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2014년 6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재선(再選)에 성공하면서 나는 지난 4년을 돌아보았다. 구의원이 되었다고 이웃에게 거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선거공약을 얼마나 실천하였으며, 지역의 민의(民意)를 얼마만큼 수용하였는지. 지난 4년의 점수는 만족할 수 없었다. 비록 재선에 성공하기는 하였지만 지역민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지역민들께서 한번 더 기회를 주었다고 판단하고 나는 심기일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초심(初心)을 잃지 않기 위하여 나 자신을 철저히 감시해야 했다.

중국 송나라 때 진록(陳錄)이 엮은 선유문(善論文)에 상구미다수작질(爽口味多須作疾)이란 말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난다. 내가 늘 잠언처럼 외우고 다니는 말이다. 음식이든 감언(甘言)이든 지나치면 탈이 나게 마련이며, 미식(美食)과 보양식만 찾아다니면 몸에 이롭지 못하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 중 상당수는 나에게 교언(巧言)을 던지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솔직한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와서 배탈이 나기도 한다. 아름다운 말은 잠시고, 나를 위한 쓰디

쓴 직언(直言)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인생의 좌표가 되기도 한다. 나는 거창한 정치적 구호(口號)보다 작은 소리를 좋아한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새내기 의원 중에는 자신이 세상의 영웅이 라도 된 것처럼 큰소리를 내거나 혹은 큰소리만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

‘울어야 젖을 준다’라는 말이 어찌면 그분들에게는 호언(好言)일 수도 있겠다. 이 같은 행동 패턴들이 모여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뒤흔들기도 한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수천, 수만의 군중(群衆)으로 대변되면 대혼란이 발생되기도 한다. 한때 나 역시 군중심리에 동화(同化)되어 젖을 달라고 울기만 했었다. 뒤돌아보면 모두 부질없는 짓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성경 마태복음 6장3절 중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는 금언(金言)이 요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일신이체(一身異體)가 아닌 다음에야 오른손이 한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 그 깊은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나는 얼마 전 홀로 지리산을 여행하였다. 흰 구름 아래 산새들은 나그네를 보고 반기는데 청산(靑山)은 묵언(默言)으로 답할 뿐이었다.

현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인연(因緣)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연, 학연, 혈연, 직연(職緣) 등. 나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세 번의 기회 중 두 번을 허무하게 지나치고 말았다. 마지막 남은 기회는 어찌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소인(小人)으로 작은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나에게 큰 인경과 큰 얼굴은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것이면 무엇이든 어울리는 내가 나는 좋다. 그러한 나를 이웃들도 바라고 있을 것이다.

내 이웃 중에 독거노인들이 계하는데 대개가 80세 가까운 고령이라 한시도 시선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록 나와 아무런 인연이 없지만 나의 이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인연이라. 지역구 풀뿌리 의원으로서 나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고 싶었다. 나 자신의 영화(榮華)를 위하여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또는 대중이 동원되는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얼굴을 내밀라고 이웃들은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정치판에는 맛있는 말을 너무 많이 먹은 탓에 건강이 악화되어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먹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또한 지키지도 못할 거창한 공약을 남발하여 주변 사람들을 분노케 하거나, 그 약속에 자승자박(自繩自縛)되어 운신의 폭이 좁아진 사람들도 더러 있다. 음식이나 말이나 사람에게 지나치면 병이 된다.

앞으로 3년 남은 의정생활이 나에게 정말로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보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분서주하며 허언(虛言)을 남발하는 일은 스스로 나 자신을 궁색하게 만든다. 예전에 먼데를 보고, 큰 것만을 보았다면, 이제는 등불 아래를 보면서 옆집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께서 혹시 끼니를 거르시지 않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달콤한 말은 곧 독약이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아득하기만 한데 드문드문 보이는 것은 잡동사니와 텅 빈 발자국 몇 개뿐이다. 3년 후 다시 뒤돌아 볼 때도 지금 같다면 어찌해야 할까. 지리산 등정할 때 이름 모를 산새와 구름은 나에게 무언(無言)의 도를 알려주었지만 무지한 나는 그 뜻을 해독(解讀) 중이다.



20살 청년으로 성장한 남동구의회에서 1년간 의정활동을 전개한 소회(所懷)

(구월2·3, 간석1·2·4) 남동구의회 의원 신동섭

25년간 현장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동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활동을 소신껏 전개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당선되어 남동구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볼 때, 어느 사안은 잘한 것 같고, 어느 사안은 좀 부족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다양한 감회가 스펙트럼처럼 뇌리를 스쳐간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팽배하였고,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다. 나 자신도 딜레마에 빠진 바가 있었다. 그 일례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는 0.8건에 불과하다는 모 일간지의 기사, 물먹는 하마에 불과한 기초의회, 자질 없는 의원이 다수인 의회 잘 운영될 것인가 라는 기사, 그대가 기초의원이 되면 실로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할 것이라는 지인의 충고등,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마음의 진통과 격랑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은 25년간의 노동자·서민을 위한 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전문성을 53만 구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히 출사표를 던졌고,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기호1-나' 번을 가지고 만여표를 득표하여 당당이 남동구의회 7대 의원이 되었다.

노동자·서민을 위한 활동과 의정활동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여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고양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각종 의정활동으로써 결실을 맺은 바 있다.

본 의원은 의원발의 21건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등 10여건을 발의하였고, 창조경제, 사회적기업, 공무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공무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인하대와의 MOU체결, 협동조합 활성화, 생활임금 조례 제정, 재난관리기금의 (가칭)행복나눔센터 공사비 사용, 청소대행업체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지급등을 내용으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였고,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Mers)문제에 대하여 남동구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재난재해예비비등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대비하는 등 남동구에서는 메르스를 통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였고, 최근 문제가



되었던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하여 어린이집 및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CCTV관련문제, 보육교사 처우문제 등을 질의하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남동구 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해수공급시설, 소래포구물량장, 남동타워, CCTV관제센터, 만수동 석경사 절개지 및 간석동 37번지 일대, 송도 매립지 5·7·10·11공구, 남동 빗물 배수펌프장, 국가 신항 지정지인 소래포구, 가뭄피해지역등의 상임위 현장점검 활동을 통하여 남동구민의 피해구제와 최소화 및 권익신장과 남동구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가 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 즉 i.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ii. 예산집행현황 및 비 예산사업 추진실적, iii.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iv. 각종민원(진정,청원,접수)처리 현황을 통하여 집행부가구민을 위한 행정, 남동구 발전을 행정을 하도록 독려 및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남동구 서민이 이용하는 동암 남부역 마을버스 정류장 분산배치 및 안전통행로 확보, 신축공사로 인한 민원문제, 마을공동체사업, 경로당 봉사활동 및 LED교체사업, 수백건의 민원등 실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한 바가 있다.

본 의원이 일년전의 기초의회에 대한 선입관과 몸소 발로 뚫 의정활동을 비교해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은 기초의회이며, 특히 남동구의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비록 의원 개개인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열심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권위의식에 몰입하지 않으며, 오로지 의원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한다면, 더 나은 남동구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20살의 청년으로 성장한 기초의회가 건전하게 성장하여 우리나라 전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더욱이 내가 몸담고 있는 남동구의회가 최고의 기초의회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 이 순간도 남동구의원으로써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며, 다음 회기에 전개할 의정활동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름으로 전율감을 느낀다.



의정활동 1년을 돌아보며

(구월2·3, 간석1·2·4) 남동구의회 의원 이선옥

안녕하십니까? 제7대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입니다.

제7대 남동구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53만 구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구정활동에 전념하신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1년은 되돌아보면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한 해였습니다.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너무 의욕만 앞세우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기에 꼼꼼하게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고자 노력하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현장속에 답이 있다’는 말을 되새기며 구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새겨들으며 민원현장을 찾아다니며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연와마을 도로포장, 석정여고와 인천남고 사이의 인도 공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저의 노력들이 결실을 이룰 때 너무나 큰 보람을 느꼈으며, 협조하여 주신 담당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삼희주택 도로포장공사 추진과 구월3동 주차장 설치 추진등 남동구 및 지역사회를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의회와 구민과 남동구청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여야 발전되는 인천시 대표 자치구 남동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송도매립지 10·11공구에 대해서도 남동구 앞바다를 매립한 엄연한 남동구 지역이나,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남동구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관할권이 결정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도 구민의 대변자인 남동구의회가 구와 함께 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송도 매립지가 남동구 관할로 귀속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나 하며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욱 더 정진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지난1년, 앞으로1년, 또 그 이후라도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여러분과 소통하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리를 가는 봉사자의 향기가 되도록 ...

(간석3, 만수2·3·5) 남동구의회 의원 임순애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임순애 의원입니다.

주민을 위하여 더 큰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방의회에 발을 들인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당선의 기쁨을 체감하기도 전에 시작된 제213회 임시회 제7대 개원식을 시작으로 세차례의 정례회와 여섯차례의 임시회 등 바쁜 의회일정을 소화하다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제7대 의정활동의 4분의 1이 지나버렸습니다.

일년동안 있었던 많은 우여곡절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모두 살피지 못한 죄송한 마음과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에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7대 의회 1년을 돌아보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는 못할지라도 등원 전 생각했던 의원생활의 각오와 겸손한 마음, 그리고 초심만은 잊지 말아야 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첫째, 민생위주의 입법활동과 철저한 예산심으로 단순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활동에 머물지 않고 정책 개발에 충실한 의회, 개혁을 말하기보다는 실천하는 의회상 구현에 남들 보다 앞장서서 감동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민생현장을 발로 뛰면서 구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구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여 불편사항 개선과 주민편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자들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말처럼 저 임순애의 봉사하는 마음의 향기가 남동구민에게 전달되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따뜻함이 전달되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는 지역 봉사자로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 1년을 돌아보며

(만수1·4·6, 장수서창) 남동구의회의 의원 전유형

존경하는 53만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 4동, 6동 장수서창운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전유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1년을 되돌아 보며 처음에 6.4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다짐했던 단어가 생각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깨끗하고 정직한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의회에 들어왔는데 지금 1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의정활동하고 있는지 새삼 되새겨 봅니다.

의정활동 1년 회고록을 쓰려고 하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지난 2014년 7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열정만 앞세워 의정활동을 하려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나름대로 깨끗한 의정활동과 창조적인 사고 그리고 진취적인 밝은 의정활동을 할려고 노력해 왔지만 부진한 점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1년을 지나면서 여러 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거쳐 남동구를 대표하는 구 의원으로서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개인보다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집행부를 견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민원을 받고 지역 현안 민원을 해결 할 때마다 의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앞으로 3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수 있는 시간이겠지만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남동구의회가 일심 단결하여 구민이 잘사는 남동구를 만드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하겠으며, 동료의원들 간에도 서로 소통하며 서로 칭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원이 되겠으며, 발로 뛰며 질책보다는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처음 가졌던 열정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다져봅니다.



제7대 남동구의회 1년을 되돌아보며

(만수1·4·6, 장수서창) 남동구의회 의원 한민수

사랑하는 남동구 53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의장 한민수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한 을미년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동구의회도 지난 해 7월 개원을 한 이후로 일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동구 의원 16명은 오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연구하는 자세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의정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일 년은 주민 여러분이 의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남동구를 위한 길인지를 알게 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정

제7대 남동구의회가 무엇보다 우선에 두고 있는 의정활동의 방향은 바로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입니다. 남동구 의원 모두는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성실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동구의회는 회기 중 주민참여와 학생의 의회 탐방의 기회 등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 해 개원 후 일 년 동안 14개 학교 250여 명의 학생들이 의정 활동 체험을 했고, 50여 명의 일반 주민이 의회 방청 및 체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인의 참여와 체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남동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사용자 편의 위주로 대폭 개편하고, 각종 자료를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만사항이나 의회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SNS 등의 여러 루트를 열어 놓았습니다. 따뜻한 칭찬의 말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질타와 조언입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귀를 열고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제7대 의회는 9회에 걸친 정례회와 임시회의 기간 동안 조례안 68건 등 101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습니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 안건은 20건으로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또한 청원 및 진정 민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처리 및 통보의 절차 진행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결 하고자 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견제와 비판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구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 조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지지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인프라 구축, 문화가 숨 쉬는 행복도시 등 주요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동구민 여러분!

정치를 시작하는 이에게는 항상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포부와 이상이 한 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차나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한 남동구, 아이가 잘 자라는 남동구, 살고 싶은 도시 남동구를 만들겠다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한 남동구의회는 항상 바른길을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않은 길

(비례대표) 남동구의회의원 이유경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는 자의든 타의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정치인으로서 ‘꿈’이 무엇이나는 질문입니다. 처음 가슴에 배지를 달았을 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일 년이 지난 지금은 쭈뼛대며 답을 미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궁금해 하는 주민 여러분에게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일 년간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는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업적, 선배 의원들이 지나간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그들이 가지 않은 길을 새로 내자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숲 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두 갈래의 숲속 길을 모두 갈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을 때의 고민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저는 10살, 5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의원도 많지 않거니와, 저만큼 어린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의원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갖는 이러한 특수한 조건 때문입니다. 얼마전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체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배우려는 호기심 가득한 눈이나, 겁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아이들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누구든 정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들처럼, 그들만큼, 적당히 해서 결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다소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부담되는 갈등이 지속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럴 때 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남동구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1년을 돌아보며

(비례대표) 남동구의회 의원 **최재현**

존경하는 53만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최재현 의원입니다.

2014년 7월 1일 처음 남동구의회 정문을 들어섰을 때의 설레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구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처음 접해보는 남동구 전반적인 예산을 보며 많은 공부의 필요함을 느껴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배우며 공부하며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구청장에게 구정질의회와 5분 발언으로 구청장의 독선적인 행보를 지적하며 의원으로서 견제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려하였고 또한 생활체육단체 지원조례 등 구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 함으로써 구민이 선택한 의원의 몫을 성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열정을 다한 1년이었습니다.

의원이 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느낀 점은 지방자치 의원이란 구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며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당리당락을 떠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을 위해 필요행정은 과감히 지원하며 구민의 혈세가 낭비성 예산, 선심성 행정으로 흐르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회의 가치와 흔들림 없는 소신을 갖고 지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53만 남동구민 여러분 !!!

지난 1년은 휴학 중이던 한국방송통신대 청소년 교육과를 다시 시작하며 공부하는 의원의 모습과 자질과 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확인하여 가, 부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년보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을 위해 말보다는 발로 뛰며 구민 속으로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 의원 선서 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간직하며 살기 좋은 남동구 구민이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1년이었지만 너그럽게 지켜봐주신 53만 남동구민 여러분과 남동구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동구 관광산업의 활성화

(구월1·4, 남촌도립) 남동구의회 의원 임춘원

경제규모가 커지고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광산업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흔히 관광 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한다. 별도의 공장이나 시설 없이도 실제적인 수입은 많고, 환경오염 문제도 적으며 홍보 효과도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외국 관광객은 한류열풍으로 급격히 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역사와 문화에도 관심이 매우 높다. 또한 국내 관광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은 바다와 섬, 갯벌 등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역사적 문물, 다양한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만 공항 등의 대규모 인프라까지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인천이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도시로 발전 해 나가고 있으면서도 관광 도시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면서도 대다수가 관광일정은 서울과 경기에서 보내고 있어 인천에 머무르는 비율은 매우 미비하다.

현재 많은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우리 인천 남동구는 관광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래포구 국가어항지정 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 최대 규모의 인천대공원을 잘 활용하고 전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활발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구월모래내시장 등을 통한 재래시장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남동구의 관광자원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이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점차 관광객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관광 자원의 종류도 다양해지는



흐름에도 잘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문화코드로 형성된 한류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큰 관광자원이 되어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유커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관광도 남동공단의 화장품 업계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한다면 그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남동구 자체의 관광인프라를 잘 구축하여 인천시 전체와 연계한 관광 벨트를 구성한다면 현재 제주도나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몰려가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을 인천에서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남동구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도포대, 논현포대를 스토리텔링화 하고 소래포구와 함께 하나의 관광코스를 만들고 개발하는 방식의 관광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 남동구는 바다, 갯벌, 낙조 등 자연환경과 먹거리 시장도 잘 조성되어 있어 관광도시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잘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 분야의 담당자들이 모두 전문가가 되어 미래의 관광 활성화에 대처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과 관광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이며, 관광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혁신시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품개발 및 운영측면, 홍보측면, 제도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하여 인천 남동구를 최고의 관광 중심도시로 구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왜 ‘제 3차 대전은 일자리 전쟁’이다. 라는 보고서에 주목해야 하는가?

(구월2·3, 간석1·2·4) 남동구의회 의원 **신동섭**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문제이다. 고학력으로 인한 청년실업,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 일자리문제, 빈부격차 및 양극화로 인한 여성 일자리 문제등 실로 세계의 리더쉽은 일자리창출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는 국내외의 거센 도전과 구조적 문제로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의 우울한 오늘과 암담한 내일을 상징하며, 청년 실업이 장년층의 3.7배, ‘고학력 백수’가 청년실업자의 52%를 차지하는 등 구조적 고착화가 가장 큰 문제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는 i. 경제적 문제, ii. 노인을 위한 복지문제, iii.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문제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갤럽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2차 대전은 놀라운 군사력의 승리로, 세계를 구한 것은 군사력이었고, 서구 사회의 자유를 위한, 자유세계의 리더쉽을 위한 전쟁이었다. 세계 일자리 전쟁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좌우할 전쟁이라는 점에서 3차 세계 대전과 같다. 세계 일자리 전쟁이 자유세계의 리더를 결정지을 것이다. 중국이나 다른 어떤 국가 혹은 지역이 창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GDP 성장에 있어 미국을 능가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것은 달라질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모든 것이 걸린, 차세대 전쟁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전쟁”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전쟁이다. 일자리 부족, 직장에서의 사기 저하, 의료비 증가, 두뇌유출, 그리고 공동체로부터의 유리 등의 문제를 놓고 치열한 전쟁중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단위를 파괴시키고, 일자리 성장을 저해하고, 지역단위 GDP를 뒤 흔들고 있다. 각 지역단위는 전쟁 전략만큼 진지한, 그들만의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그 계획은 다음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i.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지역단위에 있다. ii. 지역단위 전체가 일자리 전쟁에 나서라. iii. 하나의 목표아래 지역단위 전체가 올인하라. iv. 지역 유권자들이 중앙정부를 바라보게 하지 마라」 라고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현재, 남동구는 총인구 527,093명(2015. 7월 현재)중 청년층은 105,173명(이 중 여성은 51,085명으로 9.7%)으로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65세이상 고령층은 50,470명으로 남동구 전체인구의 9.5%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동구는 민선 6기들어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 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구민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지원,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고용안정 촉진, 창조 경제 멘토 서비스 지원단 운영, 남동형(예비) 사회적 기업가 육성, 남동구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남동형 고용지원정책 실현, 창조경제 전략화로 기업지원 활성화 추진, 1기업 1구민 일자리창출 협약 체결, 기업지원 메일링 서비스 지원 운영' 등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형식적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남동구의 슬로건인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 창조경제 멘토 서비스 지원단 운영으로 남동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여 지역단위(구)에서 성공적인 일자리 전쟁을 수행하였으면 한다.

갤럽보고서에 의하면, 「지역단위의 일자리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소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안내자, 조연자, 독려자, 그리고 멘토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한 지역을, 그리고 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conception moment) 을 시킬 영웅을 탄생시킬 슈퍼 멘토를 찾아라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어느 누구도 남동구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문제를 제기해서도 안되며, 헌신적으로 성공적인 일자리 전쟁을 치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울러 집행부는 소기업들, 특히 남동공단 기업들이 성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슈퍼 멘토 발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 바란다.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것..

(비례대표) 남동구의회의원 이유경

제 7대 남동구의원으로서 일을 시작하고 지난 일년을 되돌아보며 어린 아이를 둔 엄마로써 일하며 느낀 바를 일하는 다른 엄마들과 공감하고 함께 힘을 내고자 글을 적어본다.

내가 작년 의원이 되던 해 큰아이는 9살, 작은 아이는 4살이었다.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에 적응하면서 스트레스와 아이들과 늘 함께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난 신경성 위장염에 시달렸다.

힘든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리고, 아이가 어린데 내가 일을 시작한 것이 잘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는 늘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던 중 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두가지 일을 모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나와 비슷한 상황의 여성의원인 쓴 책을 접하게 되었고 내 생각을 정리해 나갔다.

“일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미안해 하지 마라. 아이에게 나쁜 엄마는 일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것, 신의진(著)저]

그렇다. 내가 일을 해서 아이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에서 비춰지는 힘듦의 감정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 진다면 아이들 역시 힘들어 질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좀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생각했고 내 마음속에 움트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환경이 바뀌면 기꺼이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한다.

고통과 시련을 내 것으로 거머쥐는 순간, 도저히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고통의 길은 지나가 있었고 그 시련은 나에게 있어 진정한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



톨스토이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하며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소중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 어린 아이를 두고 일을 하고 있는 남동구의 엄마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글귀를 마지막으로 적어보며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더 행복하지고 말하고 싶다.

또 남동구 의원으로써 일하는 엄마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만들기, 아이가 행복한 남동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일하는 엄마가 꼭 알아야 할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10]

1. 죄책감은 당신을 망칠 뿐이다.
2. '일이냐, 아이냐' 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에서 벗어나라
3. 아이가 아픈 것은 결코 당신 때문이 아니다
4.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일단 버려라
5. 집에 들어가는 순간 on/off 스위치를 바꿔라
6. 절대 남편을 방관자로 만들지 마라
7. 직장에서는 철저히 직장의 물을 따라라
8. 모든 일에 A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9. 일부러라도 아파 보여라
10. 당신이 가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이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것, 신의진 (著)저 中]

남동구의의회 회기 운영 현황

■ 회기운영

구분	회기별	개회일	폐회일	회기일수
제7대	제218회 임시회	2015. 2. 5.	2015. 2. 13.	9
	제219회 임시회	2015. 3. 30.	2015. 3. 31.	2
	제220회 임시회	2015. 4. 9.	2015. 4. 23.	15
	제221회 제1차 정례회	2015. 7. 1	2015. 7. 21	21

■ 조례안 및 의안처리

구분	발의·제출			가결			부결	기타
	계	의원	구청장	원안	수정	채택		
계	61	16	45	45	15	1	-	-
조례	소계	55	14	41	43	12	-	-
	제정	9	4	5	7	2	-	-
	개정	46	10	36	36	10	-	-
	폐지	-	-	-	-	-	-	-
기타안건	6	2	4	2	3	1	-	-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 시 회 (2015. 2. 5. ~ 2. 1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는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남동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 및 응답 시간을 통해 올 한해 구의 살림살이가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에는 1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창기 의원이 발의 한 「인천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남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이와 함께 총무위원회에서는 만수동 석경사 절개지 및 간석동 37번지 일대 등 재난위험지역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냉정지구 도로개설공사 현장과 아담채 등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고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활동에도 시간을 쏟았다.

한민수 의장은 “올미년 새해 첫 열린 이번 임시회는 현장 방문활동과 함께 실시한 활기찬 의정활동이었으며, 이번 업무계획 보고시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처리안건 】

순번	부 의 안 건	회의결과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민창기의원 발의)	원안가결	



- 위 원 장 민창기
- 부위원장 최재현
- 위 원 문종관, 임춘원, 임동희,
임순애, 조영규



- 위 원 장 신동섭
- 부위원장 임동희
- 위 원 문종관, 박인동, 임순애,
이유경, 최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민창기)소속 위원들은 1월 21일 제21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고, 2월 5일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섭)소속 위원들은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차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건을 처리하였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자녀 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반장 자녀까지 확대하여 행정 기반 조직인 통반장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의 획정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통·반장 임기 및 위·해촉 관리 기준을 재정비하여 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5조 제5항의 내용 중 같은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를 같은조 제5항 내용 중 임기 만료를 2회 연임 임기 만료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의 내용중 2회 6년 이상을 3회 이상 6년 초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대로 하여 수정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직무 역량 계발 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인 회계관계 공무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와 일자리센터 운영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한정된 조례를 공익을 추구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인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의 설치 및 남동형 사회적 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경제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 보조금의 이력 관리 지방보조 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 운영 관리 등 지방 보조금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중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0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남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직원 인력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51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의 규정 방향인 구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 폐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 및 요구 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구민 중심의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고 조직 개편 부서 이관에 따른 부서간의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를 맞아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예산 편성을 위해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사회도시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한정희)소속 위원들은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차의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의 남동구 계속 거주 기간 규정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애항심을 고취하는 일환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



• 위 원 장 한정희
• 부위원장 임춘원
• 위 원 민창기, 이오상, 서점원, 이선옥, 조영규, 전유형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업무 전반을 명확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교육경비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변화 확대하여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시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 지원 기간의 교육경비 제반 사항 준수로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관장 직책변경과 구립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적절한 법령 조문 인용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삭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명확성을 효율성을 위하여 상위 법령 근거를 보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 따라 규정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간접 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금연 문화 정착 및 지역 사회 간접 흡연을 최소화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하여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민창기의원 발의)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민창기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험 운영이라든가 주거 생활 지원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와 자립 생활 정착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

임 시 회 (2015. 3. 30. ~ 3. 3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는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 219회 임시를 개최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월 3일 임순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 하였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것으로 혁신전략추진단은 총무위원회에서, 남동공단지원사업소는 사회도시위원회로 정해지게 되는 등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21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처리안건 】

순번	부 의 안 건	회의결과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애의원 발의)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민창기)소속 위원들은 3월 11일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고, 제21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3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애의원 발의)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남동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임원이 위원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위 원 장 민창기
- 부위원장 최재현
- 위 원 문종관, 임춘원, 임동희, 임순애, 조영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 시 회 (2015. 4. 9. ~ 4. 23.)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는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이 다루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5명을 선임했으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은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말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한, 총 12건의 조례안 중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신동섭 의원이 발의 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및 이오상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은 5,477억원(2015년도 본예산 대비 131억원 증가) 중 총 14건 10억 9천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의에는 남동구어린이집 원장들 및 간석초등학교(교장 홍원규) 정신에 선생님의 학생 16명이 방청을 하였으며 열린 의정, 소통 의정을 위해 구민의 방청을 신청 받고 있다.



【 제22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처리안건 】

순번	부 의 안 건	회의결과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조례안 (신동섭의원 발의)	수정가결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의원 발의)	수정가결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민창기)소속 위원들은 3월 30일 제21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0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고, 제22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및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였다.



- 위 원 장 민창기
- 부위원장 최재현
- 위 원 문종관, 임춘원, 임동희, 임순애, 조영규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섭)소속 위원들은 제22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8차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다.



- 위 원 장 신동섭
- 부위원장 임동희
- 위 원 문종관, 박인동, 임순애, 이유경, 최재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 기준에 의거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위탁소가, 위탁사업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고 자전거 대여소 잠정 폐지에 따라 이를 목적 사업에서 삭제하며 2015년 1월 27일 남동복지관 준



공과 관련하여 건물 청소 및 시설 위탁 관리를 목적 사업에 추가하고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3조 제14호의 내용 자전거 대여소 유지 관리 사업을 현행과 같이 공단의 목적 사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운영되어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의해 운영하던 위원회 관련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자 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회계공무원 및 재난기금운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무를, 직위를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 기준 신설 및 상위 법령에 위원회 심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운영관리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따라 책무에 따라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 및 안전점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와 구민의 정서 생활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의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표준금액 미달 수수료 인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조례안 (신동섭의원 발의) (수정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2항의 내용 생활임금액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 생활 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에 내용중 제3항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를 제2항 최저임금액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의 내용중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신설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등 달리 적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4조 제3항의 내용중 협의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의 내용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한다를 협의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함.





• 위 원 장 한정희
 • 부위원장 임춘원
 • 위 원 민창기, 이오상, 서점원,
 이선옥, 조영규, 전유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이후 장기간 수수료 인상이 없어 주민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입각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수수료 인상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사회도시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한정희)소속 위원들은 제22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8차의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의원 발의) (수정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개정 발의한 조례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의 한도를 세대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의 세대수별 지원 금액을 1,000세대 미만과 1,000세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최대 지원 금액을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재원을 반영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 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한 적용을 위해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9일 「위원장 선임의견」, 「부위원장 선임의견」을 상정하여 위원장에 전유형 위원, 부위원장에 문종관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4월 21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다.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결과를 반영하고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5,477억원(2015년도 본예산 대비 131억원 증가) 중 총 14건 10억 9천 2백만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다.



- 위 원 장 전유형
- 부위원장 문종관
- 위 원 서점원, 임춘원, 임동희, 이유경, 최재현

1. 2015년도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액(A)	2015년 본 예산액(B)	증감액 (A-B)	%	비 고
합 계	547,731,256	534,555,639	13,175,617	2.46%	
일 반 회 계	514,603,262	501,709,231	12,894,031	2.57%	
특 별 회 계	33,127,994	32,846,408	281,586	0.86%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1차 정례회 (2015. 7. 1. ~ 7. 2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는 7월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장석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 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창기의원원의 「자원봉사 센터장 임용 자격 관련」 및 임순애의원원의 「소래포구 축제 주관 변경 추진」 관련 '구정질의' 가 있었으며, 최재현의원원의 「너나들이 캠핑장 등록지연 관련」 '5분발언' 이 있었다.



또한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최다수의 의원발의 조례 활동으로 8명의 의원이 11건의 조례 및 규칙을 발의하였다.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영규의원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등 2건, 총무위원회에서는 신동섭의원원이 발의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사회도시위원회는 한정희의원원이 발의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각각 처리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승인의 건과 관련 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5,646억원(201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69억원 증가) 중 21건 11억 8천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다.

또한 3차 본회의에서는 전유형의원원이 대표발의 하고 15명 전체의원원이 찬성 한 송도 10·11공구는 반드시 남동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매희지 사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민수 의장은 “이번 21일간의 제1차 정례회 동안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며 말하고, “향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에는 본 예산 편성 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해 주길 바란다.” 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제221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처리안건 】

순번	부 의 안 건	회의결과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규의원 발의)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민창기의원 발의)	원안가결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원안가결	
4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의원 발의)	수정가결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유경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박인동의원 발의)	원안가결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원안가결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신동섭의원 발의)	원안가결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희의원 발의)	원안가결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유형의원 발의)	원안가결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6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위 원 장 민창기
• 부위원장 최재현
• 위 원 문종관, 임춘원, 임동희,
임순애, 조영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민창기)소속 위원들은 6월 17일 제22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1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고, 2015년 7월 1일 제22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영규의원 발의)

(원안가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익년 2월말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의 의결이 필요하게 된 바 제2차 정례회 집회를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 20일로 변경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임 방법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당초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창기의원 발의)

(원안가결)

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시작 10일전까지로 제출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규정질문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세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질문 방식으로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였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하고 질문요지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규정질문시간 48시간까지 집행부에 도달하도록 하는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본 규칙 안에 대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섭)소속 위원들은 제221회 남동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11차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동섭의원 발의)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통합기금의 재원중 재난관리기금 예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운영조례 등 23개 조례의 별지 44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량제봉투 판매사업의 관리 전환을 위하여 목적사업에서 삭제하고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남동구 직영과 민간 대행형태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목적사업에서 삭제하는 것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3조 제5호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 삭제를 현행과 같이



• 위 원 장 신동섭
• 부위원장 임동희
• 위 원 문종관, 박인동, 임순애,
이유경, 최재현



공단의 목적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의원 발의)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타 기금에 통합되어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자 조직개편 및 법령의 개정과 법제처 조례 정비 대상 권고 수용에 따라 현실과 상이한 조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 및 주민의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경계가 주택가 이면도로로 되어 있는 일부 행정 동의 경계를 대로를 규정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택지 지구 개발로 인한 동별 인구 및 면적 등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어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에 관련하여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안에 내용 중 간석3동 일부 지역을 간석2동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수의 계약으로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4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사항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추어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현의원 발의)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참가하는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행정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 3항의 내용 중 구청장은 '생활체육단체가 전국 대회 생활체육 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행정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를 '단 한 종목당 연 1회에 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경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소래아트홀의 시설 활용도를 높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면폭을 높이고 시설 사용료를 낮추는 등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9조 제3항의 내용 중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을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현행과 같이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행정자치부 2014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기금 일몰제 적용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박인동의원 발의)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면서 시설비가 부담되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동구 주민에 대하여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이 변경되고 그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항 중 불일치 조문을 일치 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대행업체 평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신동섭의원 발의)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생활 폐기물 처리업자 관리와 관련하여 대행업체 지도 감독 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이 없는 모조 또는 불법 유통 봉투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과태료 부과 징수의 권한과 주민의 자율 참여를 높이는 신고 포상금 지급을 사업소와 동에 위임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일한 조례가 두 개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두 안건 모두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개를 합친 새로운 대안을 의원 발의하여 원안 가결함

사회도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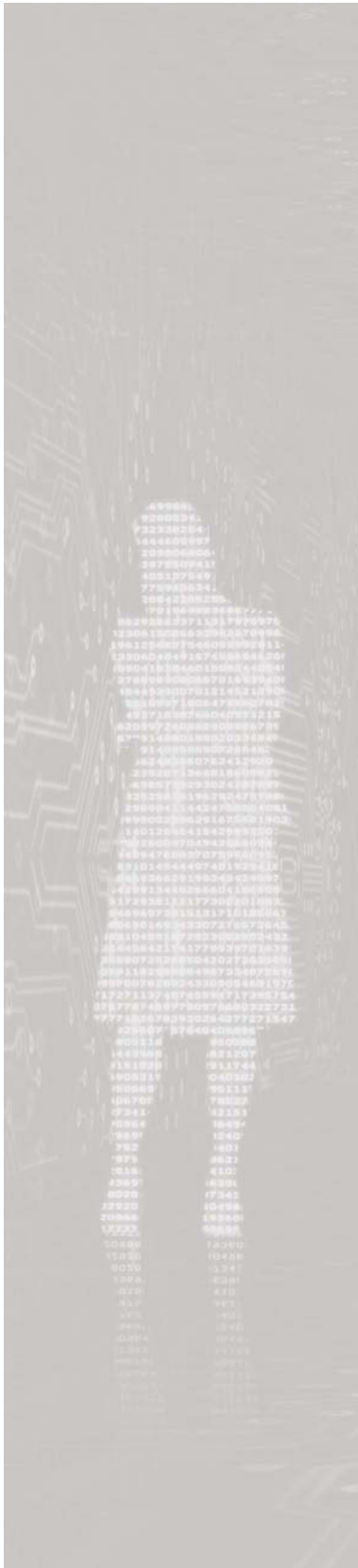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한정희)소속 위원들은 제221회 남동구의회 정례 회기간 중 11차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0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임기 규정을 위원 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함.



• 위 원 장 한정희
 • 부위원장 임춘원
 • 위 원 민창기, 이오상, 서점원, 이선옥, 조영규, 전유형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정희의원 발의)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사회복지관 위탁 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상위법을 준용하고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유지 및 일관되고 안정된 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유형의원 발의)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유형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및 보호,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위임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벽 보 게시판의 게시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업무를 사업소 및 동으로 사무위임하여 단속 정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거보 상금 지급한도액을 폐지하고 수거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 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석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수가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 및 지침 시달 내용을 반영하여 명칭, 용어 변경 및 특별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신설, 의료수가 조정 및 자구 수정을 통하여 보건소 수가 조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1회 남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위원장 선임의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장에 최재현 위원, 부위원장에 임순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0일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9억 3,966만 5천원이 증가한 5,646억 5,549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13% 증가한 5,307억 2,72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42% 증가한 339억 2,82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다.



- 위 원 장 최재현
- 부위원장 임순애
- 위 원 문종관, 임춘원, 임동희,
조영규, 전유형

1.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14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570,903,038	583,740,682	485,189,150	98,551,532	70,666,370
일반회계	529,348,635	541,242,033	471,747,680	69,494,353	44,688,614
특별회계	41,554,403	42,498,649	13,441,470	29,057,179	25,977,756

2.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액(A)	기정액 (B)	증감액 (A-B)	%	비 고
합 계	564,655,493	547,731,256	16,924,237	3.09%	
일 반 회 계	530,727,280	514,603,262	16,124,018	3.13%	
특 별 회 계	33,928,213	33,127,994	800,219	2.42%	

2015. 4. 9

Question
& Answer

논현1·2동, 논현고잔동

이오상 의원

Q&A 구정질문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동구 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남동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우리구를 비롯한 인천지역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횡령, 비리 등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나

제도가 보다 탄탄하게 운영되어 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참 행복한 가정에서 해맑은 얼굴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즐거워 해야 할 아동들에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통감해 봅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 및 그의 가족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에서는 2015년 남동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육수요율을 전년도 53.78%에서 75.18%로 대폭 상향하여 어린이집 인가 가능 권역 및 공급인원을 확대하여 부모들이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맡길 수 있는 여건과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어린이집 정·현원 및 정원 충족률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공급을 통해 주민의 보육 요구를 반영하고,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을 두어 지역별 균형배치로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3월 6일 현재 남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총 정원이 14,573명인데 반해 이용 인원은 10,748명으로 정원 충족율이 73.75%에 그치고 아직 3,825명의 여유 정원이 남아 있고 정원 충족률도 2015년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정원 충족률 83.5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고, CCTV의 무화 법안이 부결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심리가 작용하여 주로 3세미만 아동의 어머니 전업주부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육 수요율을 높여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확대하는 것은 신규인가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권 관련 과다 경쟁 및 과열이 우려되고,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중 자금력이 있는 자의 중복설치 운영으로 인한 보육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Q1 구청장의 의견대로 75.18%로 하면 현재 인가 어린이집의 2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새로 생겨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600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할 만한 인력이 준비 되어있는지, 현재 390개소도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현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영·유아가 저출산 관계로 줄어들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점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유치원도 영아(만 0~2세이하)를 수용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영아를 유치원 취원 허용 방안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수요파악을 올 연초에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는 양육수당 대상자가 9,000~12,000명으로 파악되어 12,000명을 전원을 어린이집이 수용한다고 가정해서 75.18%를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6일 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은 75.44%, 가정어린이집은 68.8%로 인가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원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보육 통합에 들어가 남동구 어린이집 수요현황을 살펴해보았더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 20명에 7~9명 정도를 보육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이 될까 심을 정도로 본의원이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원 대비 현원이 30%정도 채우지 못하면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운영이 어렵다 보면 보육 교사의 처우도 낙후 될 것이고 더나가 어린이들의 보육 서비스질이 떨어지며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정말 구청장께서 원하는 대로 자연 도태 될 것이다.

그들도 우리 남동구민의 한사람들 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Q4 구도심은 이미 현 어린이집으로도 영·유아가 줄어서 어린이집이 과포화 상태이고 신도심은 아파트입주 등으로 영·유아가 증가함으로 수요율을 현재 상태에서 지역별상황을 고려해서 수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Q5 현재 어린이집 수요율을 향상시켜야만 보육서비스가 높아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사 및 종사자들에게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선다면 오히려 어린이집의 서비스가 높아진다고 본다.

전쟁할 때 병사가 잘 먹어야 잘 싸우겠지만 지휘자가 병사에게 격려와 관심으로 사기를 높여 준다면 병사는 그 지휘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업무 경력이 부족한 행정공무원을 보내서 700페이지나 되는 지침서 한권을 주고서 어린이집을 지도 감독하라고 하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행정인지 구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담당공무원도 모르면서 지침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행정 처벌하는 상황이라면 누군들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행정행위란 공평정대 해야 하는 기준이 맞지만 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행정행위라 봅니다.

어린이집 수요도 국가가 할 영·유아교육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남동구만 해도 80%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정·민간 어린이집에서 2015년 3월 기준으로 평균 75%정도이고 최소한 90%이상 이 될 때까지 구청장께서 수요율을 보류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리고 담당직원도 어린이집 현실을 알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행정과 소통하는 구민중심의 남동구라는 슬로건하고도 부합된다고 봐 공무원들도 1일 어린이집 교사체험을 해보는 것도 어떤지 본 의원은 권유하고 싶습니다.

Q6 요즘 일어나는 어린이집 사건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잘못했다고 야단만 쳤지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지 못해 좋은 교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교사수급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 수요율 상향 조정 관계로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정책추진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린이집 현장의 소리도 포용하여 수요율에 관해서 여건이 좋을 때까지 보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5. 4. 9

Question & Answer



구월2·3, 간석1·2·4

박인동 의원

Q&A 구정질문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한민수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장석현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구의회 부의장 박인동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저와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석현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의 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위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목적 사업으로 지난 2012년 2억여 원을 들여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호응과 참여가 특히 많은 사업으로 2014년의 경우 누적인원이 1만 5천여 명을 상회하는 등 남동구의 대표적 공익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는 지난 해 12월 사전 협의

나 설명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운영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에는 2015년부터 본 사업을 폐지하라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남동구의회가 의결하여 확정된 2015년도 예산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예산에 대해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 2의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예산의 성립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사업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기획예산실 심사 및 구청장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항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았으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결국 먼저 사업 폐지 통보와 예산삭감의 조치를 취한 후, 이번 제220회 남동구 임시회에 제23조 자전거대여소 유지관리사업 ‘삭제’ 안건을 의회로 이송한 것입니다. 이는 엄격한 권력분립을 전제하고 있는 지방의

회의 의결권을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갑' 인 남동구와 '을' 인 도시관리공단의 위·수탁 계약상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은 위·수탁 계약서의 사업해지에 있어서 '갑' 이 '을' 에게 계약 해지를 하려 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조항입니다. 계약 해지사유는 '을' 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폐지 등으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 할 때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이 중 어느 조항도 해당되는 사유가 없다는 점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 계약서 제3항에는 '갑'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 사전에 '을' 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에는 최초 위탁은 계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 사업은 현재 주민의 호응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공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절차 진행으로 인해 폐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남동구는 남동구의회 의 정식 승인이 난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위·수탁 계약서 상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을 해지하려 하고 있으며, 30일 전에 계약해지문서를 통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의원은 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 사업 폐쇄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Q1 자전거 대여사업은 2012년도 2억여 원의 인프라 비용을 들여 시작한 사업으로 매년 이용 구민이 늘어 작년에만 일만오천여 명이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뚜렷한 이유 없이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2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의 제, 개정 의결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 청장은 사전 조례의 개정 없이 사업폐지를 결정하고 제반 절차를 진행한 후, 사후에 조례 개정안을 이송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삼권 분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러한 절차위반을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Q3 2015년도 남동구의회 의결로 성립된 사항에 대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4항에 위배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정 직후인 2014년 12월 말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토록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4 위 사업 관련 위·수탁 계약서 제15조에 열거된 계약 해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5 위 계약서 제15조 2항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 사전에 공단에게 의견진술을 주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회조차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안은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에 대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동구는 2013년 7월 3일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2014년 1월부터 공단으로 위탁하겠다고 승

인하고, 본 사업의 공단위탁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도시관리공단에 발송했습니다. 2014년 7월 16일 남동구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회에서 당해사업이 공단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이를 공단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여 2014년 11월 21일 남동구의회 의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사업위탁 시점인 올 초,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위한 신규채용을 막고, 견인차량 운전기사 민간 지입제도 방안 강구, 견인차량 반환 등의 업무의 주차관리 상황실 인력 활용, 견인차량 중고차 구입검토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수탁계약 결재 단계에서는 입장을 선화하여 공단과의 위·수탁을 취소하고 구에서 직영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교통행정과에서 공단으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사업환수의 배경으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구 직영으로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견인 행정을 구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공단 목적사업 지정하고 2015년도 사업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공단은 위·수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공단의 목적사업으로 지정되어 당해사업의 수권이 공단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단 위탁과 관련한 세 번의 공문을 시행하면서까지 의지를 밝히던 입장을 선화한 사업취소 결정은 남동구 행정의 공신력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Q1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의 공단 위탁계획 통보, 타당성 검토 요구, 위탁 예정일 변경 등 위탁 계약을 기정 사실화 하는 공문을 세 차례나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계약 단계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2 구청장 결재까지 받아 시행한 공문을 뚜렷한 이유 없이 입장 선화하여 남동구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Q3 2014년 11월 21일 남동구의회 의결로 공단 목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취소함에 있어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Q4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남동구는 지난 해 말 사전 예고 없이 소래대교 주차장을 폐쇄하고 근무하던 인력 8명을 재배치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건비에 못 미치는 주차장을 폐쇄하여 그 인력을 남동구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업무 인력으로 차출하려고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는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해당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기준을 50퍼센트로 정한 이유는 이러한 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공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공익 목적성은 차치하더라도 주차장 수입과 인건비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 또한 작지 않을 것으

로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인천광역시로 부터 어렵게 인수 받아 운영해 오던 소래대교 공영주차장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함에 따라 4억여원의 주차장 수입 감소가 예상 됩니다. 근무인력을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로 차출하면서 무료개방 한다면 연간 손실발생액은 약7~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Q1 2004년 시로부터 인수 받아 잘 운영되던 소래대교 주차장을 대책이나 후속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에 상응하는 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Q2 현재 소래대교 주차장으로 쓰이던 공간은 불법주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기대하셨던 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Q3 남동구 승인에 의해 운영되는 공단 주차관리원을 법률적 근거 없이 남동구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소급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 법질서의 존속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의미는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신뢰와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정권의 변화나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그 방법이나 수단은 얼마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기구를 통·폐합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일반적인 국민이 이해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세 가지 사안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사실에 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점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진력과 고집이 과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한민수 의장님과 의원님들, 장석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015. 4. 9

Question & Answer

Q&A 구정질문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한민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는 900여 남동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연일 구정을 위하여 분주하신 장석현 구청장님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주시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여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 민주연합 비례대표 최재현 의원입니다.
제7대 남동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구청장께서 남동구의회와 법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조금도 꾸밈없이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3년 5월29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익 도모와 복지증



(비례대표)

최재현 의원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부터 불법 주·정차견인 사업까지 총 14개 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 남동구로 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동구는 구청장이 지정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사업 중 ①자전거대여소 유지관리사업 ② 남동타워관리, 운영사업 ③쓰레기봉투대행판매사업 ④불법주정차 견인사업 등 총 4개의 사업에 대하여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 환수의 주된 배경을 보면 "인력이 너무 많다" "시설개선 비용이 많이 든다" 등의 사유를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위 사업을 공단에서 환수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말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핵심적 차이는 결산결과 손익금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여부로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어 결국 수익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

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주된 업무는 환경관리, 재난안전 대책, 수선유지 등 상시적 시설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환수의 과정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에 이송하여 환수 사유 와 시기, 방법 등을 설명하고 심의·의결 과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공포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절차 없이 먼저 사업을 환수하겠다고 구두 통보 후 공문시행 및 예산 삭감, 조치한 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 환수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지난달 3월25일 “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전환 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에 삭감해 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판매 사업을 남동구에서 직영하겠다며 사업 환수 배경을 명시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은 남동구가 공단출범 당시인 2003년도에 공단 목적사업으로 지정하여 지난 11년간 무리 없이 잘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 환수 사유가 ▶ 종량제봉투의 제작과 판매 일원화의 예산 효율적 관리 및 봉투판매 수입관리 용이 ▶ 봉투제작 및 수급관리, 위조(불량)봉투관리와 예방 ▶ 종량제봉투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정판매소의 관리 용이와 청소행정 개선이라 하는데

Q1 지금까지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의 불편한 점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지 못한 점은 무엇인지?

Q2 공단이 대행하면서 지금까지 위조 봉투 판매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례와 공단의 판매 과정에서 어떠한 위조봉투 판매가 가능한지 ?

Q3 구가 직영한다면 공무원이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무원의 업무에 맞는지 공무원이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면 공단의 대행과 무엇이 다른지 ?

Q4 주민의견 수렴과 지정 판매소 관리 업무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찾아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는 공단이 아닌 남동구의 업무일 것인데, 이를 사업 환수의 사유로 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지금까지 구청에서 행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지정업소 관리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것이 용이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업 환수의 사유도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25일 사업 환수 공문에 대해 공단에서는 “사전에 조례 개정도 없이 시행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자 “그럼 그 시기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시 시행 하겠다” 는 청소과의 구두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공단의 업무는 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수 역시 남동구의회 의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먼저 사업을 환수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예산 삭감을 선(先)조치한 후,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한 마디로 지방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행정 절차나 과정이 중요한게 아니라 구청장이 하

고 싶은 데로 하겠다는 의지 표현 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타워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동타워는 2008년도 당시 대한주택공사 열 병합 부속시설로 건설하여 남동수영장과 함께 남동구로 기부 채납되어 남동구 의회가 공단 목적사업으로 의결하여 2008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남동구가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2015년도에는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사업, 소방관청의 요구사항 등으로 남동구 의회에서 1억9천6백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동구는 2014년12월24일 성립된 예산에 대해 전체 금액 1억9천6백만원의 예산 중 무려 88%에 해당하는 1억7천200백만원을 삭감하면서 달랑 공문 한 장 보내는 방식으로 통보 하였으며, 더불어 레스토랑 계약만료 시점인 “ 금년 7월 9일 까지만 공단과 위·수탁 계약 유지” 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 위·수탁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 하였습니다.

위·수탁계약 해지는 위·수탁계약서 제15조에 명시된, - 공단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공단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남동구가 인정하는 때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때 -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등으로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해지 조건인 제15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통보 없이, 그리고 지방치법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위상과 권한을 가진 남동구의회가 가 부, 결정을 기다리지도 않고 남동구에서 사전에 사업을 환수하는 것은 직권 남용과 더불어 절

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사업운영이 지방공기업법 및 공단 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위·수탁 계약상 문제가 없음에도 주관적, 물리적인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결정되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공단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법과 남동구의회와 조례 등을 무시하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바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조례가 구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추진과정에서 공단직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과 구의회를 무시한 절차에 대해 사과와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환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 전 인천일보에도 보도된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제3장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기준은 제8조에 따른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8조는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을 신규 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다시 말하면 신규자격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신규채용의 경우 그 기준을 명시하여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환경미화원 16명 공석에 대해 신규채용 방식이 아닌 도시 관리공단 산하의 청소담당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편법소지가 있고, 환경 미화원 채

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형평성 논란과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인력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환경미화원 소속 변경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환경미화원 효율적 관리를 이유로 환경미화원 소속 당사자를 구청에서 각동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2-3년에 한 번씩 근무지를 옮길 경우, 그때마다 고용주가 변경되고, 새로 근무하는 동에서 실수로 입사처리가 지연되는 업무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나 보험혜택이 제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못 해줄 망정 신분의 불안정을 불러오는 이런 조치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소속은 예전처럼 남동구청으로 하고, 관리감독은 각동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6기 900여 남동구 공직자의 근무여건과 제반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주민들을 접하

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6기 단체장으로 출범하신 이후 900여 남동구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출근하고 싶은 직장, 공정한 직장,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직장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쉽게도 지난 9개월간의 남동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구청장의 행정스타일은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남동구 공무원들은 이 직장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민선6기 단체장에 취임한 이후, 장석현 구청장님께서 '창조경제'를 구정의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창조' 경제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창조력'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상호소통을 통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실시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남동구지부 여론조사의 결과는 남동구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참으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현재 자신이 일하는 직무에 만족하는 공직자는 34.6%에 불과하며, 불만족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가 39.8%, '업무 외 노동'이라는 답변이 18.8%로 업무관련 답변이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장분위기 경직' 때문이라는 답변 역시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남동구를 떠나고 싶다'는 공직자들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공직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구

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업무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복수 응답을 포함해서 55%의 공직자들은 직장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직원 상, 하간 소통이라고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가장 힘든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문인식과 같은 통제 분위기가 72%, 경직된 조직 문화가 28% 등과 같은 전근대적인 조직문화를 뽑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이후 2번에 승진, 전보인사를 단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원칙기준 배제와 인사권자의 자의성 개입으로 61.2%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900여 남동구 공직자의 보호자이신, 장석현 구청장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이란 것은 결코 혼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도 없으며, 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도 구민들이 4년간 일시적으로 위임한 것일 뿐 임의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이 조직 안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조례 등에 정해진 데로 행정을 하고,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 행정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인의 언로(言路)에만 의지하지 말고, 구의회와 900여 남동구 공직자,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민수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1만 남동구민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장석현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4. 9

Question & Answer



장석현 구청장

Q&A 구청장 답변

A1 2015년도 남동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대한 남동구청장의 의견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우리구를 비롯한 인천지역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횡령, 비리 등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15년 남동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급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을 19개 동으로 세분화하고 남동구의 어린이는 누구나 어린이집에 다닐수 있도록 수급율을 높여갈 방침입니다. 어린이집을 늘림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자간 자율경쟁은 결국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A2 자전거 대여소의 폐쇄와 예산삭감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자전거 대여소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입구에 설치하여 자연생태계를 보호·유지해야 하는 소래습지생태 공원을 훼손하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어 현 위치에서의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잠정보류하게 되었으며 향후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재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자전거 대여소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며 의회의결 내용과 같이 구분청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 잠정

보류로 도시관리공단에서의 예산집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공단 자체예산서에 미 반영된 예산액으로 표기되었습니다.

A3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최종단계에서 바꾼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은 당초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실행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견인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다시 민간에게 재 위탁 할 경우 관련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으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견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최소화 하고 추가 차량구매가 필요한 화물차 견인 업무 등은 민간 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A4 소래대교 주차장 폐쇄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부천중동C 하부 공간 주차장의 화재사건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시설물의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화재발생시 교량 구조안전이 우려되고 소래대교 폐쇄에 따른 교통대란 등이 예상되는 소래대교 하부 공영주차장을 2014년 11월에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폐쇄 전에 주변 상인 단체와 사전 설명회를 갖고 남동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A5 종량제 봉투판매소 직영운영과 관련된 봉투 제작 및 수급관리, 지정판매소관리 등 청소 행정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구청에서 제작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단지 위탁판매 업무만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입을 경영수입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적으로 인식하는 불합리한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봉투제작과 위탁판매가 분리된 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판매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직영운영을 통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봉투제작과 판매의 효율화, 위조봉투판매 등의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판매소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주민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여 구민편의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A6 남동타워 2015년도 예산삭감과 폐지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타워는 2008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 기부 체납된 시설로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남동타워 2015년도 예산은 196,498천원으로 구분청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이 2015년 7월 9일부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공과금,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등의 필수경비 23,888천원을 도시관리공단 자체예산서에 반영하여 표기한 것이며 잔여 예산은 위·수탁 계약 해지 후 향후 감액할 계획입니다. 시설 폐지사유는 남동타워는 고객 유치 요인 부재로 이용객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로 인한 임대업자의 경영악화로 장기간 임대료 체납이 발생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문제점 개선등 별도 시설활용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폐쇄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A7 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을 본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는 문제와 동에 배치한 환경미화원 4대 보험 상실과 자격취득신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동청사 청소관리업무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효율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방식이 비용대비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현 도시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전환 채용은 위탁업무 환원에 따른 고용승계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채용 절차 진행은 규정 및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4대 보험 상실과 자격취득신고에 대하여는 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및 19개 동의 환경미화원 인사발령 시 개별 사업장에서 취득과 상실신고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적기에 4대 보험 취득·상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8 민선 6기 출범이후, 남동구 공직자의 근무여건 및 제반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시각은 아직 과도 인력이 과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며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며 남동구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휴직자 등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성공직자의 증가, 특히 가임여성 공무원의 증가와 육아 휴직제도(남성도 가능, 3년까지 연장)등의 확대에 따른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는 민선6기 출범 후 구민들에게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열심히 일하는 남동구 공직사회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무원들은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 하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2015. 7. 9

Question & Answer

Q&A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민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동구 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Q1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봉사 센터장 임용과 관련하여 기관 경고를 받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불변인것입니다. 공정심이나 원칙을 가지고, 규정에 따라 인재를 쓰는 것이야말로 조직의 일할 맛과 사기를 제고시켜 주는 것



논현 1·2 동, 논현고잔동

민 창 기 의원

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직원을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한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24일 선임된 최모 센터장의 경우 남동구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제10조 규정 센터장의 자격요건인 1호~4호까지의 어느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 부적격자를 채용함으로써 남동구는 시로부터 기관경고 “주의”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의 내용을 인천시의 감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봉사 기본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자원봉사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대학교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이상 활동한 자” 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또는 민·관 혼합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 내 인사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센터장의 자격 요건은 남동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지를 두고 활동을 한 자로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사람,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이상 활동한사람”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안전행정부)]에 의하면 “자격요건의 자체적 확대해석을 금지” 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위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2014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채용공고를 하고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서류전형시 응시자가 접수한 구비서류를 실무선에서 1차 검토하여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 씨가 제출한 고려료양병원 자원봉사자 관리 및 상담프로그램 위원 위촉장만을 가지고 자원봉사 관리업무 종사자 5년 이상자로서 자격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과시켜 남동구 희망복지지원과에서는 서류를 보완 제출 받으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재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 받아 면밀한 검토없이 선임심사를 통과시켜 부당하게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 통보하여 채용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격자를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채용하는 우를 범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동구는 기관경고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린 바와 같이 부적격자를 채용토록 선임한 해당직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경고까지 받은 부적격 센터장은 이미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부적격상태를 해소할 즉, 재 채용할 용의를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다문화지원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각각 별개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센터는 목적과 기능이 달라서 각자의 전문성있는 센터장이 운영하여야 효율성과 성과성을 낼 수 있는 업무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및 지방자치 단체의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가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나가는데 이들을 장려하고, 연계하여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 즉, 기관이라 하겠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다른 성격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대상자도 확연히 다른 성격의 업무라 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다문화가족이 2,5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전체 14,564명 중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잘 적응하여 불편없는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역할이 구의 책무라 하겠습니다. 그들이 의사소통과 행정서비스 제공, 그 자녀들의 학습 지원 사업 등 우리사회에 실질적으로 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장을 전문성이 부족한 한사람이 겸직케 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Q3 구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겸직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이 안되는 부분을 해소하여 전문성있는 센터장을 임용하여 다문화 정책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9

Question & Answer

Q&A 구정질문

존경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늘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남동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3동, 만수 2, 3, 5동 지역구 출신 임순애 의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동안 계획하셨던 일들이 뜻하신 바 대로 잘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축제는 테마를 가진 계획이며 행사입니다. 따라서 구의원들의 문화나 생활양식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축제에 따르는 한가지 공통점은 늘 기쁨과 화합으로 함께 한다는 데에 중요한



간석3동, 만수2·3·5동

임순애 의원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에 기쁨과 화합이 없다면 그 축제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의미 없는 축제라 할 것입니다.

본래 축제란 열심히 일한 자들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행위로부터 유래된 행사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축제의 주체가 되어야 할 열심히 일한 자들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협조가 없다면 그 축제 또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의미 없는 축제라 할 것입니다.

소래포구축제는 2000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5회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래포구 상인들과 어민 그리고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개인적으로 사비까지도 들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래포구축제 홍보를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2004년 8월 남동문화원이 설립되어 2005년부터 남동문화원에서 축제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소래포구축제는 남동문화원이 축제를 주관하면서 10여년 동안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명실공히 남동구가 아닌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등 이제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래포구축제의 성장과정 속에는 남동문화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은 우리 모두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갑자기 제15회 소래포구축제의 주관이 남동문화원에서 남동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 됨에 따라, 본 의원으로서는 그 배경에 대하여 의아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금년 축제 역시 남동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15년도 예산 확정시에도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소래포구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갖은 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던 남동문화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주관사를 바꾸는 것에 대하여 일말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소래포구축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Q1 첫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소래포구축제가 시작된 이래로 구심점 없이 추진되던 축제가 그 중심축을 갖고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가 2005년 이며 그때부터 소래포구축제는 남동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남동문화원 주관으로 추진해 온 소래포구축제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두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10여년에 걸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추진되어 오던 소래포구축제를 금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청장님 임의

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도록 민간위탁 기관을 변경 하셨는데 그렇게 변경하게 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추진하는 축제에서 지역주민 및 어민, 상인들의 다양한 협조를 얻어 내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때 지역주민이 배제된 소래포구 축제의 의미를 어떻게 되새길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축제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주민들의 참여 및 협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래 모든 기구나 조직은 자신의 자리에 맞는 역할이 따로 있고 할 일도 따로 있는 법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으로서의 자리에 맞는 역할이 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문화원이라 하면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 맞는 역할에 대하여 정하여 놓은 것이 정관이나 조례 등이 될 것이며 그러한 정관과 조례에는 그 조직의 존재 이유나 하고자 하는 일 등이 정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동문화원 정관 제4조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지역고유 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을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행사 등의 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문화행사의 대행이 문화원의 주요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관리공단인 경우는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6조 및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그 목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청사시설 관리” “공원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등 대부분이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목적사업 내용 어디에도 지역문화행사 등의 문화사업의 대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꼭 조례에 명시된 대상사업만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관이나 조직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까지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동문화원 정관 제3조에 따르면 남동문화원의 설립 목적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1조의 설립목적은 보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양 기관의 설립 목적을 비교해 보더라도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인 소래포구축제를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누

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설립목적이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등 기관의 존재이유를 배제한 채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운영조례 제24조의 내용만을 인용하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굳이 본 의원만의 생각 일런지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1년여의 시간들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남동구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본의원 개인적으로도 많은 소회를 남길 수 밖에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고마운 뜻을 받들어 제7대 구의원으로 나서게 되면서 진정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발로 뛰는 의원이 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하였지만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 보다는 배운 바가 더 컸던 의정 생활이 아니었나 반성도 하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도 해 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변화와 격동의 시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격동의 시기에 우리 남동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남동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7. 9

Question & Answer



장석현 구청장

Q&A 구청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장석현입니다.

제22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민수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창기, 임순애 두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 먼저, 민창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관련 및 다문화센터장 겸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 내지 10조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남동구자원봉사센터장은 지난 2014년 6월 전 센터장의 사임에 따라 공개채용을 추진하여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임하였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으로 남동구 만수동에 소재한 “고려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관리 및 상담프로그램 위원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2개월간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2008년부터 사회복지재단인 “엄홍길 휴먼재단”의 이사로 사회적 봉사과 나눔의 삶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분야 경력이 인정되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조례 제10조 제2호의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기준에 의거 남동구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 시 종합감사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관련 지적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 및 면접시 경력증명서가 아닌 위촉장만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하여 “검토의 면밀성 부족”을 지적받은 사항으로 최종 선임시에는 이미 서류가 보완되어 선발요건에 충족하였습니다. 향후 제반 채용심사시 위 지적사항을 유의하여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A2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과 다문화센터장 겸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남동복지관을 준공하고 남동복지관 내 자원봉사센터와 다문화센터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장이 다문화센터장을 겸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 센터장 겸임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금년 하반기에는 센터장을 별도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 다음은 임순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문 화원이 주관이 되어 추진해오던 소래포구 축제의 문제점, 도시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 기관 변경한 이유, 앞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해결방안,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축제는 그간 소래포구를 우리구의 대표적 관광지로 알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교통 및 주차문제, 행사장 청소관리 등 개선과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축제와 관련된 시설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행사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축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소극적 참여문제는 반상회 및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축제 대행사업은 조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축제를 위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2015년 소래포구 축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 더욱 경쟁력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분 자유발언

2015. 2. 5
5 minutes
speech



전 유 형 의원
만수1·4·6동, 장수서창동

존경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석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1, 4, 6, 장수서창, 운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전유형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남동구와 연수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행·학대사건과 관련한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남동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창동의 모 어린이집에서는 식자재 부풀리기 등 비리가 발생하여 고발된 상태이고 서창동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지난해 4월 보육교사가 잠이 든 아동의 몸에 비닐봉지에 든 얼음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잠을 깨웠다가 아동학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구월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에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이 CCTV 동영상으로 알려지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연수구에서는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급식으로 나온 반찬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의 뺨을 때렸고 보육교사의 폭력에 무방비로 서 있던 여아는 구석으로 날아가 떨어졌으며,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이며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चु는 아이의 모습이 CCTV 동영상에 공개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에게 행해지는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규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언론을 통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도로 인해 인천시와 남동구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이미지의 실추와 보육환경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인식의 전환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동구가 엄마와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자격요건관리 강화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보육교사의 자질과 사명감 고취를 극대화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조교사 확대를 지원하는 등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어린이집 원장은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청의 지원을 통해 CCTV 설치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양적 팽창과 보육교사 자격증의 남발로 인해 인성과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들의 취업이 아동 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거지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육 교사들의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남동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책임 있는 대책 강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철저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2015. 2. 5
5 minutes
speech



박인동 의원
구월2·3동, 간석1·2·4동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부의장 박인동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동구청 육상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해, 남동구 육상부의 육지은 선수와 조은주 선수가 주축이 된 대표팀이 여자 1600m 계주에서 한국신기록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도 매우 뜻 깊은 일이었으며, 남동구청으로서도 큰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육상 100m 기록이 31년 만에 새로 작성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선수들의 기록 갱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육상은 그만큼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흘리는 땀과 쏟는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 선수들이 남동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남동구청과 구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동구청 소속 육상부 선수 중 지난 해 말 계약이 만료된 최주영 선수와 이아름 선수는 올해 6월

까지만 계약이 되어 거취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강원도에서 열리는 제96회 전국체전을 위해 한창 구슬땀을 흘려야 할 시기에, 이 선수들은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태로 훈련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운동이야말로 몸의 컨디션을 체계적으로 맞춰 나가야 하는 분야입니다. 목표로 하는 경기에 맞춰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이와 같은 현실은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의 선수 계약 관련 규정은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남동구는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통상 연 단위로 이뤄지는 것은 선수들의 페이스 조절과 기록 갱신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쪽짜리 계약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두 선수의 거취에 대해 본의원은 남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남동구 육상부는 단 일 원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있으며, 모든 예산은 선수의 실력 향상과 남동구 위상 제고를 위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장석현 남동구청장님! 그리고,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 가끔 우리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가치를 매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적다거나 손익이 맞지 않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시장의 논리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행정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의 투자에서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더욱 많은 점수를 주어야 합니다.

남동구 육상부는 지난 20년 간 그러한 투자를 꾸준히 해왔으며, 크고 작은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손익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투자가 밑바탕이 된다면 더 탄탄한 남동구 육상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장석현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불안한 상태로 운동하고 있는 남동구 육상부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체전을 준비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2015. 7. 9

5 minutes
speech



최재현 의원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최 재현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 민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나들이 캠핑장 등록 지연으로 애꿎은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고 세금낭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새 민선6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장석현 구청장께서는 행정에 대한 일관성 없는 지시로 공무원들의 탄식과, 갑질 행정으로 흐르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관의 자질로서, 부하의 단속은 너그러우면서 엄정하게 하고, 여론과 현실을 엄밀하게 살피며,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기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석현 구청장께서는 진정 이런 자세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언론 보도를 들어 아시겠지만 7월 7일 인천대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너나들이 캠핑장의 대표가 남동구청장과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담당과를 상대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도 유발되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집단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의사소통과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시간낭비나 쓸데없는 비용 낭비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비용이며,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석현 구청장께서는 바로 이런 협의와 의견조율, 소통을 단순히 낭비적 요인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남동구청이 고소당한 너나들이 캠핑장이야말로 이에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캠핑장은 자유업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월 29일에 일반 야영장 등록제도가 생겼으며,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 이후 등록기간과 요건을 강화하는 일련의 제도가 정비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캠핑장 등록요건을 살피고, 법적 문제가 없으면 마치 자동차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마땅히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석현 구청장께서는 실무자가 현장점검을 실

시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캠핑장 등록업무는 과장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천시와의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등록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관청이 행정 업무를 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만으로도 정당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등록 조건상 문제가 없는 업체에 대해 끝까지 등록을 거부하며 갑질의 전형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패소 이후에도 끝까지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본 의원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7월7일자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남동구청장과 해당 직원들이 피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장석현 구청장님! 법규가 모호하고, 법리적 충돌이 발생할 시에 우선적으로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너나들이 캠핑장 등록과 관련해서는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고, 이에 대해 담당자가 문제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등록을 지연시켜 결국 해당 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리한 행정과 홍보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은 오로지 장 석현 구청장의 독선적인 행정과 직권남용으로 빚

어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이나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보상 소송이 발생시에 구민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원해야 하며, 애꿎은 담당 직원들만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권한은 남용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단체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너나들이 캠핑장과의 다툼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민,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담당 직원들이나 남동구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장석현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 하여주신 한민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문

2015. 7. 21
Resolution
Letter



전 유 형 의원
만수1·4·6동, 장수서창동
대표발의 15명의원 찬성

『송도 매립지 관할권 사수 결의안』

— 송도 매립지 5, 7, 10, 11공구는 “남동구의 앞바다” 이다! —

현재 중앙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송도 매립지 10, 11공구는 남동구 앞바다를 매립한 엄연한 우리 남동구 지역이다.

남동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남동구 앞바다 매립지의 관할권을 52만 구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타 자치단체로 귀속시키려는 무책임한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남동구 주민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민의 대변자인 남동구의회 역시 같은 심정으로 송도 매립지가 남동구 관할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송도 매립지 5,7,10,11 공구는 남동구의 앞바다 지역이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관할권은 당연히 남동구에 귀속되어야 한다.

하나. 10공구 매립지는 신항 조성과 도로개설에 따른 화물차량 증가 등으로 남동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남동구가 관할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하나. 송도의 관할권이 한 지자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시행청의 지나친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남동구의 앞바다는 남동구에서 관할할 때에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나. 관할권의 편중은 지자체간 극심한 차별을 초래한다. 인천광역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 남동구도 함께 관할하여야 한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한쪽의 편만 들지 말고 어떤 것이 인천 시민 전체를 위한 길인가를 생각하여야 하며, 남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인천과 송도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일동

2015년 남동구의회 의원세미나

▣ 남동구의회(제7대 제1기 의장 한민수 외 15명)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에서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특강, 상임위원회별 업무연찬과 의원 및 의회사무국 공무원이 함께 하는 효과적인 의회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에는 현 국회사무처의 의정연수원 김종두 교수를 초청하여 조례안 입안 및 심사 기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설득력 있는 스피치 훈련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 동영상 교육, 위원회별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브레인스토밍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서는 전문강사를 초청해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제주도 우수사례인 우도, 해안지질공원 등 남동구에 접목여부를 검토해 보는 현장견학도 강화했다.

한민수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남동구议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 정례회 운영 등 향후 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구민의 삶에 활력을 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였다” 고 말했다.



2015년 의회운영위원회 비교시찰

▣ 의회운영위원회(상반기)

• 시 찰 지 : 충남보령시 의회, 보령시 문화의 전당

• 시찰내용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민창기)에서는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충남 보령시를 방문하였다.

이번 비교시찰은 우리구 자매도시인 충남 보령시 의회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행정의 혁신사례 및 시책 우수 사례, 시설물 등을 견학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행정 도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역점을 두었다.

먼저 의원들은 29일 보령시의회를 방문하여 부의장 및 보령부시장과의 환담을 나누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보령시 관광사업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도모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령지역 최초의 박물관인 보령의 향토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박물관인 「보령 박물관」을 방문하였으며, 갯벌생태 박물관, 석탄박물관 등 을 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우리 구에 접목할 만한 우수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의원들은 이번 비교시찰에서 보고 얻은 우수사례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15년 총무위원회 비교시찰

▣ 총무위원회(상반기)

• 시찰지 : 부산광역시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 감천문화마을, 해동용궁사)

• 시찰내용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섭)는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에 걸쳐 부산광역시를 방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월에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번엔 현장 비교시찰로 우수 정책을 우리구정에 접목시키고자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부산시를 방문하였다.

먼저 해운대구의회를 방문하여 해운대구의 주요현황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우수사례를 상호 소개하며 상호 교류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했다.

또한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를 방문하여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빗물을 재이용하여 발전용수로 전량 사용하는 그린 발전소를 견학하였으며, 마을미술 프로젝트 진행으로 낙후된 동네에서 관광명소로 탈바꿈된 감천문화마을을 둘러보았다.

의원들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파악된 관광특구 국제도시 부산시의 여러 우수사례를 향후 우리 구의 관광사업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계속 노력 할 것이다.



2015년 사회도시위원회 비교시찰

▣ 사회도시위원회(상반기)

• 시찰지 : 경북문경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경시 문경새재 옛길박물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범어도서관, 시민안전테마파크 등)

• 시찰내용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한정희)에서는 지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에 걸쳐 경북 문경시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방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이번 벤치마킹은 선진 시정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참신한 정책을 구정에 접목시켜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의 관광명소 유치에 독보적인 성과를 이룬 문경시 문경새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조형물 설치 등 우수 사례를 둘러보았으며, 수성구의회를 방문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 시책과 수성구의 주요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양구 의원들 간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상호 교류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했다.

또한 대구 지역의 25개 도서관 중 구립도서관으로 보유자료 대비 이용률이 대구에서 가장 높은 범어도서관,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재난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안전테마파크, 팔공산 국립공원 등을 견학하였다.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서 위원들은 견학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남동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현 장 활 동

▣ 총무위원회 : 석경사 절개지 및 간석동 37번지일대 위험지역 현장 점검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섭)에서는 2015년 제218회 임시회 회기 중 소관부서로부터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할 점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월 9일에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 임동희 부위원장, 문종관, 박인동, 임순애, 이유경, 최재현위원은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치안을 위해 설치된 CCTV 현황을 보고받고 안전한 지역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월 13일에는 만수동 석경사 절개지 및 간석동 37번지 일대의 재난위험지역 현장을 집중 점검했으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지역 중 유일의 절개지 위험등급 E급 지역 이었던 석경사 절개지의 보강 사업은 지난해 11월 보수보강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3월 보수보강 완료에 따른 등급이 재조정 되었다.

간석동 37번지 일대의 특정관리대상시설 E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도 현장을 점검하고 신동섭 총무위원장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현 장 활 동

▣ 사회도시위원회 : 아담채 및 ‘냉정지구 도로개설공사’ 현장 활동 전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한정희)에서는 지난 2월 12일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아담채’ 와 ‘냉정지구 도로개설공사’ 현장 방문을 통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 임춘원 부위원장, 민창기, 이오상, 서점원, 이선옥, 조영규, 전유형 위원은 수산동에 위치한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 공사’ 시행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사업추진실태 및 예산관련 문제점들을 청취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 최초 부자(父子)보호시설인 ‘아담채’ 를 방문해 청사 현황을 둘러보고 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고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정희 위원장은 시설 관계자에게 “어려운 저소득층 부자가정 세대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 고 하였으며 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현 장 활 동

▣ 남동구 의회, 설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민심 살피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민생현장 탐방차 2월 17일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 방문해 최근 어려운 경기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또한 불편사항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심리도 위축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한 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펼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약속하였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한민수의장, 신동섭, 임동희, 임순애, 이선옥, 임춘원, 민창기, 전유형, 이유경의원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설맞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통시장을 찾은 구민들에게 “싸고 질 좋은 물건들이 많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전통시장 방문에 나선 한민수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활기를 띠는 모습이 보기 좋다” 면서 “의원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재래시장이 항상 많은 손님들로 북적되도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말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 장 활 동

▣ 남동구의회, 만월산 둘레길 벌목현장 확인

남동구의회(의회 한민수)에서는 지난 5월 4일 만월산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등산로 주변 나무 수백그루가 마구잡이로 베어져 물의를 빚은 현장을 방문했다.

만월산 둘레길 벌목현장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비운사이 '숙아내기' 작업내용을 '수종교체' 로 오인한 사업시행처의 작업팀이 자르지 말아야 할 나무를 포함해 200여그루의 나무를 무더기로 벌채하여 사과문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산벚나무 및 편백나무를 심어 복구중 이었다.

구의회에서는 '만월산 과다 벌채'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을 파악하고, 의회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건 발생 경위, 추진상황 및 재발방지사항,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한민수 의장은 "추후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고사목 등 재해위험 수목만 제거 될 수 있도록 감리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줄 것" 과 그리고 "벌채된 나무들의 정리 등 안전사고 예방과 숲가꾸기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 확인에는 한민수의장을 비롯하여 임동희, 임순애, 조영규, 최재현 구 의원이 참여하였다.



현 장 활 동

☐ 총무위원회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지원사항 점검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섭)은 6월 12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상황실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및 예방대책을 보고 받고 의심환자 이동진료소를 방문해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과 대응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갑작스런 재난에 버금가는 메르스(MERS)관련 수많은 문의전화와 격리자의 1:1 밀착관리 및 상황관리 등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특히, 현재 관리대상 16명의 예산 지원사항에 대하여도 긴급복지지원(생계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등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를 요청하였다.

신동섭 총무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은 메르스 등 전염질환을 비롯해 각종 재난 대처에 최우선으로 쓰이는 자금인 만큼, 메르스로 인한 확진 환자의 발생 시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한 남동공단 기업체 가동중단의 사태발생시를 대비하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남동구는 긴급복지지원(생계비)지원 예산 1,725백만원 중 메르스 격리자에 대하여 409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남동구 재난관리기금액은 5,596백만원이다.



현 장 활 동

▣ 사회도시위원회 : 보건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상황실 격려 방문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한정희)는 6월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사태와 관련 구 보건소에 설치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대책상황실과 의심환자 이동진료소를 방문해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과 대응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사회도시위원들은 보건소장으로부터 현황과 대책방안을 설명 들었으며, 현재까지 인천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인근 서울, 부천 및 시흥지역에 확진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의심환자의 자택의 격리 시 계속 모니터링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구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정희 위원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 며 “남동구의회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방지와 방역대책에 온힘을 다 하겠다” 고 강조했다.



현 장 활 동

▣ 남동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현장활동 실시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는 2015년 제221회 정례회 회기 중 소관부서로부터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관련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섭)에서는 송도매립지 귀속지자체 결정 추진 관련 장소인 송도 10공구 일원 및 11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위원들은 비록 송도 5·7공구가 연수구로 관할권이 결정되었으나, 송도 10·11공구에 대하여는 귀속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여 우리구로 관할권이 결정되도록 중앙분쟁위원회에 제출할 자료 준비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으며, 이어 고잔동에 소재한 남동 빗물 배수펌프장을 현지 방문해 현황 보고를 경청한 후 신동섭 총무위원장은 “여름철 우기에 대비 배수 펌프장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해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에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남동배수펌프장은 배수유역이 남동공단, 승기천 주변 40.38km²로 도심 빗물 배수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한정희)에서는 지난 5월에 착공한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건립 현황 및 운영 계획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책임자에게 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하자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 현장을 방문하여 인도가 없어서 불편을 겪어오던 수현로 14번길 일원이 확장공사를 통해 인도를 확보하게 되어 지역 주민이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진 점을 높이 평가하고 현장 담당자를 격려하고 공사 준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남동구의회는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구의회 상설감사장에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으로 임춘원 구의원을 대표로 정해설 회계사, 조동희 세무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들은 2014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해 재무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였다.

결산검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이월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과 기금의 결산, 국·시비 보조금 결산,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과 결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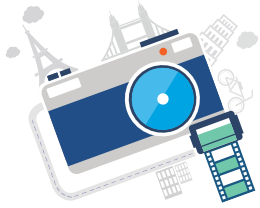
지난 한 해 남동구의 세입총액은 5천837억원이었고, 세출은 4천852억원으로 차인 잔액은 985억원이다.

현재 결산검사가 완료되어 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6월말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구의회는 제 1차 정례회 때 자료를 검토한 후 승인을 거쳤으며 다시 구로 이송하였다.

이후 구는 승인된 자료를 시로 보고하고, 이와 동시에 일반 주민에게 고시한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2015. 1. 1
(을미년 새해아침 남동구의회 신년산행)



2015. 1. 12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남동구의회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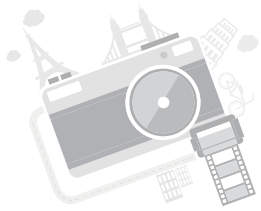


2015. 1. 12
(유정복 시장과 함께하는 시민과행복, 희망대화)



2015. 1. 19
(운연동 음실마을 주민의견청취-장수서창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2015. 1. 22
(굿뉴스코 해외봉사단과의 만남)



2015. 1. 25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 남동구
축구연합회 시무식 및 안전지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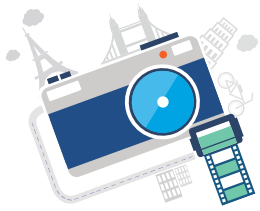


2015. 1. 23
(2015년 적십자특별회비 전달)



2015. 1. 27
(남동구의회 육군참모총장 감사패 수상)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2015. 1. 29
(2015년도 남동구의회운영위원회 타시도비교시찰)



2015. 2. 13
(제218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현장활동-석경사절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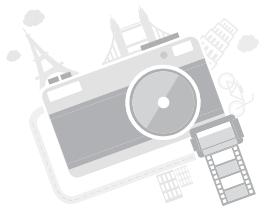


2015. 2. 12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현장활동 -도림동냉정지구 소2-1호선도로개설현장)



2015. 2. 17
(설명절맞이 전통시장방문-구월,모래내시장)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2015. 3. 12
(사랑의 배식활동전개-노인복지관)



2015. 2. 25 ~ 2. 27
(지방의원대상 2015지방재정 아카데미)



2015. 3. 23
(2015년도 상반기 타시도비교시찰
-총무위원회, 해운대구의회)



2015. 3. 19
(2015년도 상반기 타시도비교시찰
-사회도시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방문)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2015. 4. 2
(제70회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2015. 4. 16
(국공립서창나무어린이집 개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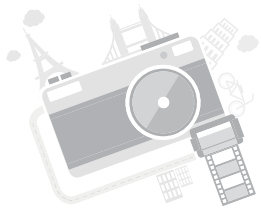


2015. 4. 7
(민간, 가정어린이집원장과의 간담회)



2015. 4. 23
(청소년의회 직업체험 교실-간석초등학교6학년)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2015. 4. 25
(2015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2015. 5. 24
(제2회 남동구연합회장배 생활체육풋살대회)



2015. 5. 4
(만월산 둘레길 별목현장확인)



2015. 5. 28
(제3회 통·리장 한마음대회)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2015. 6. 3
(2015년 남동구의회 의원세미나
-교양강좌, 장빈에듀컬쳐대표)



2015. 6. 12
(중동호흡기중후군 상황실방문-총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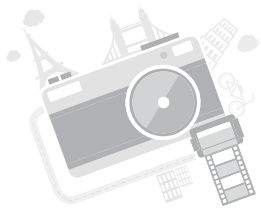


2015. 6. 10
(중동호흡기중후군 상황실방문-사회도시위원회)



2015. 6. 16
(총무위원회 국가어항지정관련 소래포구 및
가뭇피해농경지 현장방문)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2015. 7. 1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5. 7. 1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방청-새말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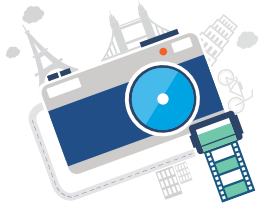


2015. 7. 1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방청-새말초등학교)



2015. 7. 1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2015. 7. 2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15. 7. 9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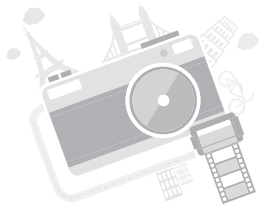


2015. 7. 2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2015. 7. 9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현장활동
-송도매립지 10·11공구, 남동배수펌프장)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2015. 7. 20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7. 9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
-남동청소년 문화의집, 수현로 14번길 일원)



2015. 7. 21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 7. 21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 7. 21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송도매립지 10·11공구, 관할권 사수 결의)

2015년도 남동구의회 회기 운영 계획 변경(안)

❖ 회기 운영 : 총 7회 83일 (임시회 5회 40일 / 정례회 2회 43일)

구분	회기	일수	주요안건	비고
계	6회	82일		
제218회 (임시회)	2. 5(목) ~ 2. 13(금)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설연휴 2.18~2.22
제219회 (임시회)	3.30(월) ~ 3.31(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220회 (임시회)	4. 9(목) ~ 4.23(목)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221회 (제1차 정례회)	7. 1(수) ~ 7. 21(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질문 •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 201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222회 (임시회)	9.14(월)~ 9.17(목)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의결 (상임위원회별) 	추석연휴 9.26~9.29
제223회 (임시회)	10.19(월)~10.28(수)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 (본회의)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224회 (제2차 정례회)	11.20(금) ~ 12.11(금)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질문 •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 2016년도 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남동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소개,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기능, 회의록 검색, 의회에 바란다 등 의회의 정보 검색은 물론, 남동구의회외의 대외적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구민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http://www.namdong.go.kr/ndCouncil> | 🔍 검색하기

직접 만남도, 인터넷도, 전화도 좋습니다.
구민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남동구의회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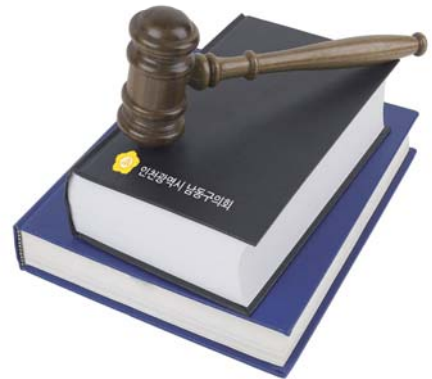
● 방청안내 | Guidance for admission

일반신청(개인) :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전화·서면으로 신청
※ 당일 신청의 경우는 회의 개최 전에 직접방문하여 방청신청서 작성

● 의회견학 | Guidance for admission

남동구 의회는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의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와 현장학습으로서의 효과가 클 것입니다.

견학안내 전화 453-5150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의회
열린 의정으로
구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